

이영수의 이상(異像) 화보집



이영수의

이상(異像) 화보집

발행일 2018년 9월 9일 3판1쇄 인쇄

지은이 이영수

그림 김도연

사진 에덴사진부

디자인 나현미

편집 윤상학

펴낸곳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매골로 189

전화 031-581-5005

info@ieden.kr

http://ieden.kr

ISBN 979-11-86212-14-1 (03230)

비매품

© 이 책의 모든 그림과 글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법인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차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위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머리말

이 화보집을 보시고 읽는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각 화보 장면마다 이상을 보여 주신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지금 네가 본 바를 말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네게 보여주고 들려준 장면들과 그 이야기들을 믿어줄 것이니, 그때까지는 침묵으로 간직하고 있거라.” 하고 말씀하셨기에, 나 자신도 그때가 언제쯤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알곡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알곡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 가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영적인 장면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공연장(‘문화의전당’) 내부에 전시할 그림을 준비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경륜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화보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보집 안의 내용들은 뻔 것도 더한 것도 없이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 이상 중에 보고 들은 바를 서술하였음을 독자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읽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화보를 보시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목구멍이 시원해지거나 달콤한 것이 느껴질 때, 또는 머리 위에 이슬비 같은 것이 내리는 것을 느끼거나 찬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화보의 장면들이 사실임을 입증해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한국기독교에텐성회 총회장 이영수

목차

여호와와의 세계 관련 이상 3

첫 번째 여호와 알현, 두 번째 여호와 알현, 지성소의 선지자들

마귀의 세계 관련 이상 15

마귀의 헐박, 제사 받는 대왕 마귀

성경 관련 이상 29

에덴동산, 가인에게 주신 표, 예수님의 고민, 오병이어의 기적,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천국연회장, 심판, 천국과 지옥의 형상

감람나무 관련 이상 47

처음 본 이상, 원시생활, 여의도 광장 부흥회 후, 앞선 종의 영적 지위, 천사와 과일, 알밤 추수, 포도 추수, 한탄하는 감람나무, 축복의 말씀

그 외의 이상들 67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추수 사명을 받은 이영수 총회장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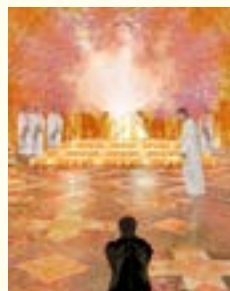
알곡성전 단지 소개 86

지방 교회 98

에덴성회 출간 도서 100

여호와와의 세계 관련 이상

이영수 총회장은 1970년 예수님과 함께 처음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뵈었다. 이어 1974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에 다녀왔고, 1972년에는 하늘 나라의 지성소에 있는 선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첫 번째 여호와와 알현



두 번째 여호와와 알현

지성소의 선지자들



첫 번째 여호와 알현 (1970년 4월)

내가 1968년 4월에 전도관(첫 감람나무가 세운 교회)의 전도사를 휴직하고, 1970년 4월, 석관동에서 살며 삼일산업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상태로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상 중에 갑자기 웬 젊은 미남자가 웃으면서 다가와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고 하였다. 내가 누구시냐고 물으니, “나사렛 예수니라.”고 하셨다. 내가 놀랍고 반가워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여쭙니, “나하고 아버지께로 같이 가자.” 하시면서 나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셨다. 예수님의 손이 따뜻하고 폭신하게 느껴졌다.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그림을 보고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예수님은 나보다 7cm 정도 키가 더 크셨다. 예수님의 얼굴은 둥그스름한 편이었고, 우리 눈은 보통 가름한데, 예수님의 눈은 그보다 약간 더 둥그란 편이었으며, 눈동자는 까만색에 파란색이 좀 섞여있었다. 머리카락은 그다지 길지 않았고, 머리카락 색은 까만색에 불그스름한 색이 섞여있었다.

예수님께서 내 어깨에 한 손을 얹으시더니, “내 손을 꼭 잡아라.” 하셨다. 순간 내 몸은 예수님의 손을 잡은 채로 공중으로 떠올랐는데, 무섭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여 밑을 내려다보았다. 마을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예수님과 나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생겨서 긴장하였다.



1970년 당시의 저자



내가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라.” 하셔서 예수님의 손을 힘껏 잡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생각나 질문을 드렸다. “주님,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과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지금처럼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랬노라고 하셨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땅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이 구름 사이로 작게 보였는데, 당시에는 내가 비행기를 타본 일이 없어서 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한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음부를 통과하느니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손을 꼭 잡아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음부가 땅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공중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희한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힘주어 예수님의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하여지고 칠혹 같은 어둠이 에워쌌다. 나로부터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커먼 손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느끼며, 몹시 긴장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어둠의 세계를 통과하였다.

한참을 날아서 캄캄한 음부를 통과한 후에 눈앞이 갑자기 환하여졌고,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었다. 서서히 눈을 뜨니, 내가 궁전 같이 화려한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내가 앉은 곳으로부터 약 30미터 전방에 웅장한 보좌가 있었고, 보좌 양쪽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으며, 내가 볼 때 오른쪽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왼편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한 자세로 서 계셨다. 곧 이어 예수님께서 보좌를 향해, “제가 택한 이긴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아계심을 알았다.

용광로의 쇠물 위에 이글거리는 것 같은 광채가 여호와의 상체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렸다. “네 이름이 이영수지?” 하시며, 고개를 들라고 하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나 불꽃처럼 영롱한 빛이 눈이 부셔서 도저히 형상을 볼 수 없었다. 보좌에서 계속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하마.” 하시고 나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앞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옆에 공손하게 서 있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성을 보여줘라.” 하고 지시하셨다. 즉시 천사 둘이 내 옆으로 와서 양쪽에서 내 팔을 붙들었는데, 나는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여 어느새 웅장하고 화려한 큰 건물 안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마치 학교 복도처럼 복도가 끝없이 길게 뻗어 있었고, 복도는 윤이 나며 반짝거렸는데, 복도 오른쪽으로 방들이 수 없이 많이 있었고, 방 입구마다 명패가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크기는 약 30평정도 되었고, 내부는 보석 같이 찬란한 자재로 꾸며져 있었다. 안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중간에 좀 작은 책상이 있었으며, 문간 쪽에 약간 더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세 개의 책상이 모두 찬란한 금장식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 방들은 장차 십사만 사천의 왕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곳이었다. 나는 이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룩한 성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계21:23 참고).

◀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장면

두 번째 여호와 알현 (1974년 1월)



1974년 당시의 저자

에덴성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상 중에 여호와와의 보좌 앞에 다시 가게 되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뵈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상황에 대해 물으셨다. 내가 지상의 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다시 물으셨다. 나는 첫 감람나무의 초창기 때에 비해 사람들이 악하여 치리하기 어려우니 더 큰 권한을 주시기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 “너만 알고 하라.”고 하셨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셔서 보좌 앞으로 나갔는데, 내가 보는 쪽에서는 왼쪽이고, 여호와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1미터 정도 높이의 탁자 위에 농구공만하고 오색이 영롱한 진주알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주가 방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없으니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셔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둥근 진주알 같은 것 속에 은하계가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어떤 것은 길쭉하게 생겼고, 어떤 것은 둥그렇게 생겼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비어 도넛같이 생겼었다. 당시는 그것이 은하계인줄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은하계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주알 같은 것을 통해서 본 것과 같아서 감회가 깊었고, 한편 미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우주의 신비함을 체험했다.



여호와께서 농구공만한 진주알 같은 것을 통하여 우주를 보여주시며
우주의 방대함을 알려주시는 장면



지성소의 선지자들 (1972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선지자들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다. 선지자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었는데, 세마포는 우리가 입고 벗는 옷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피부와 같이 몸의 일부인 것 같았다. 세마포는 유리 가루를 뿌린 수은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과 같이 빛이 났는데, 마치 세마포를 입은 선지자들은 인조인간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선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눌 때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모세라고 말하기에, 내가 그에게 질문을 하였다. “성경에서, 당신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것을 읽었는데,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뵈었으니, 지상에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소감이 어떻소?” 그러나 내 질문을 들은 모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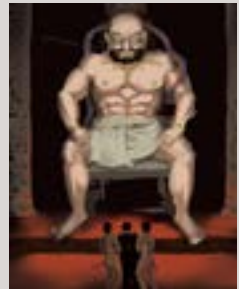
1972년 당시의 저자

◀ 세마포 입은 선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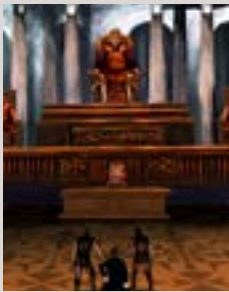


마귀 세계 관련 이상

이영수 총회장이 하나님을 뵈고 난 후 마귀들이 찾아와 그를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그는 마귀 세계에 가서 대왕 마귀를 보았다.



마귀의 협박



제사 받는 대왕 마귀

마귀의 협박 (1971년 8월)

1971년 4월에 예수님께 감람나무로서의 사명을 받고 몇 달 지나서 마귀 두 마리가 나에게 찾아왔다. 다음 그림은 나에게 찾아왔던 두 마리 마귀 중 하나의 모습이다.

마귀의 외모는 약간 두려운 모습으로 느껴졌는데, 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정도 되었고, 눈초리가 위쪽으로 치켜져 올라가 있었으며, 귀는 당나귀 귀처럼 크게 생겼고, 발가벗은 상체는 건장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세 개로 되어 있었고, 60센티미터 정도 되는 꼬리가 달렸으며, 다리는 염소 다리처럼 생겼는데 굽이 갈라졌고, 걸을 때는 궁둥이를 뒤로 빼고 뒤통거리며 걸었다. 마귀의 음성은 약간 허스키하였는데, 내가 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비교적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1971년 당시의 저자

저자를 찾아 온 두 마리 마귀 중 하나의 형상 ▶





두 마리 마귀가 저자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말하며
예수를 버리라고 유혹하는 장면

마귀들이 나에게, 예수가 뭐 좋다고 따르느냐고 하면서, “예수는 이천 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라고 하였다. 마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겠느냐고 하여, 그러겠다고 하였더니, 영화관의 스크린 같은 것이 앞에 나타나며,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나타났다. 마귀가, “보라. 우리가 죽인 예수다. 그래도 예수를 따르겠느냐?”고 하기에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마귀가 재차, “네가 예수를 버리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너는 예수가 대단한 줄 알지만, 우리 능력이 더 크다. 우리의 능력을 보라.”고 하였다. 저만치 목에 머플러를 두른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노랑게 되라.”고 하니까 즉시 머플러가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강게 되라.”고 하니 또 즉시 빨강게 변하였다. “보라. 그래도 우리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해서, 역시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마귀들이 그냥 갔다.

며칠 후 같은 마귀들이 다시 찾아와서 또 유혹을 하였는데, 내가 응하지 않았더니, “이놈이 말을 안 들으니, 대왕님께 데려가자.”고 하면서 양쪽에서 나의 양 팔을 붙들고 나를 끌고 갔다. 길을 가면서 두 마리 마귀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이긴자가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대왕님께 끌고 가자.”고 하였다. 나는 마귀들에게 이끌려 마귀 세계에 도착했다.



저자를 자기들의 세계로
끌고 가는 두 마리 마귀



대왕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우상



대왕 마귀의 보좌 앞에서

그곳에는 키가 한 30미터쯤 되어 보이고 눈이 농구공만한 우상이 있었다. 우상이 눈을 부릅뜨고 내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당하게 서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어찌나 음성이 큰지 주위가 찌렁찌렁 울리고 기가 질릴 정도였다. 그러나 두 마리 마귀가 나를 끌고 오면서, “이놈은 이긴자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한 말이 생각나서, 속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어쩔 수 없으니 해코지를 하지는 못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우상이, “이놈을 대왕님께 끌고 가라.”고 하였고, 두 마리의 마귀는 내 겨드랑이를 팔로 끼고 다시 나를 끌고 갔다.

지상의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끌려간 것으로 느껴졌다. 어두침침한 큰 건물 안으로 끌려들어가서 보니, 웅장한 건축물 안에는 시종드는 마귀들이 있었고, 사람 모양을 한 대왕 마귀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데리고 온 마귀 두 마리가,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무릎을 꿇어라.” 하며 강제로 내 무릎을 꿇렸다.

보좌에 앉아서 저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대왕 마귀 ▶



이상한 것은 대왕 마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5분 정도 나를 내려다보고만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마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대왕 마귀는 머리에 위엄 있는 관을 썼고, 점잖은 자세로 좌정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신비롭게 보였다.

나는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를 틈타 있는 힘을 다하여 그곳을 빠져 나와 도망하였다. 뒤에서는 마귀들이 쫓아오면서 나를 향해 창을 던졌는데, 창이 꺾가를 스치면서 쇳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나는 도망하다가 기운이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때 갑자기 내 앞에 눈부신 광채가 나타났고 마귀들이 도망하였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마귀들은 뿌지직 소리를 내면서 햇볕에 눈사람이 녹듯이 녹아내렸다. 그 순간 빛 속에서 하얗고 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 시며, “이제 알겠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줄개 마귀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느니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이상에서 깨어보니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 성령이 우수수 하면서 단비로 머리에 쏟아져 내렸다.

예수님께서 광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 ▶



제사 받는 대왕 마귀 (1972년 4월 20일)

이상 중에 마귀 세계를 다시 가서 보게 되었다. 대왕 마귀 앞에는 향로가 있었고, 그곳에서 향연이 올라오는데, 대왕 마귀가 그 앞에 좌정해 있어서 지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영광을 받고 있었다. 그때 향연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지상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비를 구하는 기도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더니 대왕 마귀가, “그 지역을 담당한 자가 누구냐?”고 하였다. 한 놈이 나서며, “접니다.” 하니 까, 대왕 마귀가, “가서 도와줘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 놈이 번개같이 사라졌다. 내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대왕 마귀가 나를 보았고, 저놈이 또 왔다고 하면서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대왕 마귀 곁에 서 있던 마귀 하나가, “아버님, 내가 가서 저놈을 잡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쫓아왔다. 그래서 나는 ‘오! 온 세상의 권한을 받았다고 하며 주님을 괴롭히고 시험을 하던 놈이 저놈이구나.’ 하는 것을 이상 중에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놈이 뼈죽하고 이상하게 생긴 창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도망을 쳤다.

창을 든 졸개 마귀들이 먼저 가까워졌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내 손을 보니, 어느 샌가 나의 손에는 권능의 방망이가 쥐어져 있었다. 주께서, “그것으로 쳐라.” 하셨다. 그 방망이로 가까이 온 마귀의 머리를 내려치니 마귀는 “퍽” 하고 쓰러지고 내 손에 든 방망이는 처음보다 더 커졌다. 마귀 몇 마리를 쓰러뜨리며, 나는 속으로, 방망이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들고 있나, 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이미 방안은 햇살이 비쳐서 눈이 부실 정도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성령이 단비로 우수수 하고 머리에 내렸다.

지상에서 올라온 제사를 받고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대왕 마귀 ▶





성경 관련 이상

이영수 총회장은 이상 중에 20대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을 보았다.



에덴동산



가인에게 주신 표



예수님의 고민



오병이어의 기적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천국연회장



심판



천국과 지옥의 형상

에덴동산 (1970년 5월)

따뜻한 봄 날씨에 작은 동산을 걸어 다녔는데, 그곳에는 강이 있었고 강 옆에는 작은 언덕들이 옹기종기 있었으며, 각종 꽃들과 작은 초목들이 있었다. 강 상류 쪽의 깊이는 발목 정도였고 넓이는 약 20미터 정도 되었는데, 물속에는 자갈들이 깔려 있었고 물이 반짝거리면서 흐르는 개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개울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깊어졌으나 폭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나는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왼쪽 팔목에 상처를 입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근 후에 나오려고 일어서니 손목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서 신기했다. 이것이 에덴동산의 신령한 강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옛날 아담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생활을 했을까 궁금했지만, 사람이나 짐승은 보지 못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 중에 아담이나 짐승을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왜 아담을 안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다고 나와 있어서, 내가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으니 안 보여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덴동산에서 강에 몸을 담그고 있는 저자



가인이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주셨던 마패와 같은 표

가인에게 주신 표 (1975년 7월 13일)



1975년 당시의 저자

새벽에 보여주신 이상이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범죄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창4:5-7). 그때 가인이 분을 못 이겨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는데, 들판에는 멀리 사람들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가인이 뉘우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표를 주셨다. 그 표는 동그란 동판으로, 직경이 20cm 정도 되어 보였고, 마패처럼 생겼으며, 앞면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동물 그림으로 된 상형문

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동물의 형상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라는 느낌이 들었다.



20대 때의 예수님

예수님의 고민 (1970년 4월)

20대 초반의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우시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앞날을 생각하시며 우울해 하셨다. 이상 중에 보니,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셔서 손수 만드신 책상 위에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으셨다. 책상은 통나무를 반으로 갈라서 넓은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여러 개를 이어 붙여 만드셨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책은 아주 크고 두꺼웠는데, 양피지로 만든 것이었다.

예수님은 책 위에 팔꿈치를 대시고 그 책상에 기대어, 당신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나도 예수님이 고민하시던 때와 같은 나이에 전도사 발령을 받았기에,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오병이어의 기적 (1976년 9월 3일)



1976년 당시의 저자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상 중에 그 광경을 보여주셨다.

제자 중 하나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져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셨다. “여기 소쿠리가 어디 있느냐? 빨리들 일어나서 소쿠리를 구해 와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참 있다가 여러 크기의 그릇들을 많이 갖다 놓았다. 열 두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심부름을 하면서도 의아심을 갖는 표정이 그들의 얼굴에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가져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들을 광

주리에 담아 예수님께 가져가니, 예수님께서 광주리에 두 손을 얹고 축사를 하셨다. 이때 내가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키가 더 크고 체격이 더 좋아보였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신 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것을 갖다 나눠주어라.” 제자들이 처음에 받아간 건 얼마 안 되었다. 그것을 제자들이 각 소쿠리에 담은 순간에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 소쿠리에는 많은 양이 담겨졌다. 제자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했다. 주께서 “나눠줘라.” 하셔서 각자 소쿠리를 들고 가져가서 나눠주었다. 그 떡을 나눠줄 때 얻어먹는 사람들은 그 떡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니까 먹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손에 떡을 들고 누군가에게 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떡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두 개의 떡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를 옆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또 손에 두 개의 떡을 받아들게 되었다. 그렇게 전달을 하니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 장정들은 하나를 다 먹었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다 먹지를 못하니까 떡이 남아서 나중에 거두고 보니, 실제 열 두 광주리에 수북하게 쌓였다.

나는 이상을 본 후에, 이 광경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신기하게들 생각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실 때의 축복 기도 장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1970년 6월)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 서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았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계셨는데, 탱자나무와 비슷했다. 그것은 꾸불꾸불한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머리를 움직이면 그 무게 때문에 내려앉았는데, 어느 정도 내려간 후에는 가시가 이마에 배겨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통으로 된 흉포를 입으셨고, 손을 앞으로 하여 묶은 밧줄은 뒤로 엮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에서 조롱하고 있었고, 돌맹이가 날아올 때 예수님은 손이 묶인 채로 서계셨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을 나서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소를 당하셨다. 나는 이상 중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픔과 안타까움을 못 이겨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이 앞으로 묶인 채로 서 계셨는데,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냥 계십니까?” 하고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묶인 두 손을 내 머리 위에 얹으시고, “잘 봐두어라. 내가 이렇게 죄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였노라. 너는 지금 본 대로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그 광경을 겪은 후에 이상에서 깨어나 눈을 뜨니, 마음이 너무도 서글퍼서 한참을 울었다.

저자에게, “잘 봐두어라. 내가 이렇게 죄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였노라. ▶ 너는 지금 본 대로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1970년 6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밤잠을 며칠 설치며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기운이 없어 자주 넘어지시니, 로마 병사들이 길가에 있던 사람을 불러 십자가를 대신 옮기도록 했다. 병사들이 끌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을 눕힌 후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장면은 못을 박을 때였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셨는데, 그 순간만은 참지 못하고 신음 소리를 내셨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며 귀를 막았다. 로마 병사가 굵은 못을 망치로 들이칠 때 뼈가 부서져나가니까 지치셨던 예수님도 그때 외마디 소리를 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상 중에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창이 등 뒤까지 뚫고 나갔다. 성경을 통해서, 로마 병사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창이 등 뒤로까지 빠져 나갔었다는 것은 몰랐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남자 둘, 여자 셋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들였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은 대단히 늙어보였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가 다 빠져나간 고로 노랗게 변했고, 뼈와 가죽만 남아서 헐쭉했다. 불과 몇 시간 차이인데도 빌라도 뜰에 서셨을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 ▶



천국연회장 (1975년 11월)

예수님께서 이상 중에 천국연회장을 보여주셨다. 연회장은 장충체육관과 비슷하였는데, 지붕은 돔형으로 되어 있었고, 안에는 십사만 사천이 앉을 좌석이 있었다. 의자는 상당히 컸는데, 의자마다 그 앞에는 탁자가 있었고, 탁자 위에는 명패가 있었다.

수많은 백보좌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호명하여 그 모든 선지성인들을 순서대로 단상에서 소개하실 때 성도들 각자가 지상에서 고생한 내용을 일일이 소개해주셨는데, 연회장에는 큰 화면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의 설명과 함께 그 성도가 지상에서 고생하던 장면이 나타났다. 성도들은 자기가 주께로부터 소개 받으며 칭찬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상에서 일평생 고생한 것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수고와 주의 보혈의 은총 덕분에 자기가 영화로운 그 자리에 서서 영생토록 희락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느끼고 어깨를 들쩍이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상 중에 예수님과 같은 단상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나도 감정이 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때 주께서 그의 눈물을 씻어 주시며, “모든 것이 끝났다. 너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끝나자 천사 둘이 와서 그 사람을 그의 명패가 있는 보좌로 안내하였다.

그 장면을 보고 눈을 뜨니 한 동안 멍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앞으로 펼쳐질 영의 세계가 정말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사만 사천의 의인들을 각각 소개해 주시는 장면



심판 (1977년)

이상 중에 최후의 심판 장면을 보았다. 십사만 사천의 하늘군병은 마귀와의 싸움을 마친 후에 심판 권세를 받게 되며(계20:4), 심판은 십사만 사천 군데에서 이루어진다. 각 심판관은 큰 홀 안에 있는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는데, 심판관 좌우에는 보좌하는 천사들이 앉았고, 심판 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실내에 들어와 긴 의자에 앉았으며, 나머지는 밖에 서 있었는데 그 줄은 끝이 없어 보였다. 심판관 앞에 있는 탁자 위에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한 일들이 기록된 책들이 놓여 있었는데, 심판관은 그 책을 보며 심판을 하였다.

또 심판관들은 지상에서 특별히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이나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 받도록 배정되어 있어도, 예수님의 보좌를 물려 받은 자(계3:21 참조)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심판하는 곳으로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심판관은 최후의 심판에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나는 영의 세계의 심판 제도가 이 세상의 재판 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신비롭게 여겼다.



1977년 당시의 저자

◀ 창세 이후로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영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 장면

천국과 지옥의 형상 (1975년)

많은 이상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상에서는 특이한 장면을 보았는데, 하늘나라에 천국과 지옥이 서로 곁에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모습이었다. 그곳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우주 건너편 정도 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주는 사라져서 별들은 보이지 않았다.

천국 쪽에는 찬란하고 끝없이 넓은 광야 같은 곳에 돔 모양으로 된, 엄청나게 큰 세 개의 건물이 있었다. 또 한편에는 캄캄한 지역에 용광로에서 불길이 이글거리며 치솟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비참하여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다.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기어 나오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였다.

천국과 지옥이 엄청나게 크지만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떨어져서 보았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영의 세계인데도 푸른 하늘이 있어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옥과 천국이 동시에 하늘나라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다. 사실 심판에 의해 누군가는 천국으로, 또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므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을 뜨고 나서도 1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으면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뭐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나도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면 무서운 불 구렁텅이에 들어갈 뻔 했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실 천국과 지옥의 광경



감람나무 관련 이상

이영수 총회장은 이상을 통해 감람나무로서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 많은 장면들을 보았다.



처음 본 이상



원시생활



여의도 광장 부흥회 후



앞선 종의 영적 지위



천사와 과일



알밤 추수



포도 추수



한탄하는 감람나무



축복의 말씀

처음 본 이상 (1958년 4월 20일)

나의 가족은 내가 9살 때, 6.25 전쟁 중에 강원도 철원에서 경상북도 김천으로 피난하였다. 나는 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부친이 중풍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우리 집은 부친의 병을 고치느라고 가산을 다 탕진하였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2년 선배인 염계웅에게서 전도관에 가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1958년 4월 17일에 당시 박병권 전도사가 시무하던 김천전도관에 나갔다.

나는 전도관에 나간 지 사흘 만에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에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더니 공상과 학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구름 속에서 광채가 내려오는데, 길을 가던 학생들이 그 빛에 닿아 몸을 비틀고 꺾꺾거리며 눈두렁과 길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두려웠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광채가 내 앞으로 쏟아졌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미국 사람 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내려왔다.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외국 사람들은 모두 미국 사람인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더 있었다. 내가 두려워서 떠나니까 미국 사람 같이 생긴 분이, “괜찮아, 너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도 너는 괜찮아.” 하셨다.

깨어나서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모양이다.”라고 하셨다.

빛을 발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



원시생활 (1972년 4월)

아담이 에텐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여 여호와께 여쭙었다.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그 후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셨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장이 190cm가 넘는 장신들이었는데, 피부색은 인디언과 같았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렸으며, 체격은 마치 육체미 운동을 하는 거구 같았고, 얼굴은 다들 미남형으로 잘 생겨 보였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통나무를 잘라서 굴 입구를 열기설기 막아 큰 짐승이나 사나운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들판에서 이삼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지껄었는데, 짐승들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으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편에서는 매머드가 거닐고 있었고, 하늘에는 날개가 크고 부리가 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편 날개의 양 끝 사이는 8미터가 넘어 보였다. 사람들은 치마처럼 짐승 가죽으로 하체를 가리고 있었고, 팔다리는 털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다. 짐승을 잡을 때는 긴 막대기로 만든 창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려서 잡기도 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구워먹기도 하지만 날것으로 그냥 먹기도 했다.

나는 저런 것이 원시인의 생활이구나 하고 긴장을 하면서 그들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다가, 눈을 떠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상에서 깬 후에도 한참이나 지나서 현실로 돌아왔고, 성령이 이슬처럼 우수수 하고 내렸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원시시대를 살아가던 광경

여의도 광장 부흥집회 후 (1973년 5월 30일)



1973년 당시의 저자

1973년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적인 부흥강사 빌리 그레이엄이 부흥집회를 할 때, 전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 풋말을 앞세우고 바닥에 신문지나 돛자리를 깔고 앉아 열심히 기도 와 찬송을 드리고 있었고, 나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나는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감람나무로서의 사명을 받고,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전국적인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여의도 광장으로 찾아 갔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광경을 눈여겨본 후에, 나는 쌍문동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저녁 무렵에 동네에 있는 마지막 한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낮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 궁금하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밤 1시쯤, 이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였다. 천사를 따라 길을 가는 중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광채가 땅으로 비취면서 일곱 가지 무지개 색으로 된, 빛나는 천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 마치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사용하는 천과 같은 두루마리가 내려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펼쳐지면서 내 앞까지 닿았다. “그 위에 올라서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서 천 위로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열린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는데, 그곳에서 광채가 비취며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아까 네가 질문한 말을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내 섭리가 아니면 나 여호와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섭리에 들어와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내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라.” 나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납득하기에 벅찬 느낌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장면

앞선 종의 영적 지위 (1974년 4월 14일)

이상 중에 보니, 오십 여 명의 선지자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씩 호명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선지자들과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십사만 사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군병의 수다(계14:1, 19:14). 그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었는데, 세마포를 입은 선지자들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이나 인조인간처럼 보였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실 때, 앞선 종(첫 감람나무)이 한쪽에 의기양양하게 앉아있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본인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앞선 종의 얼굴색이 변했다.

호명이 끝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렸다. “주님, 장로님이 지상에 있을 때 옥중에도 두 번씩이나 들어가시고, 열심히 일한 분입니다. 누락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타월로 된 긴 가운 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아래 양쪽에 주머니가 있었고, 끈으로 허리를 묶으셨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후에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더니, 오른쪽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어 내게 주셨다.

두 손으로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는 앞선 종의 이름이 한문으로 세로로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역시 한문으로 ‘하위(下位)’ 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봉투를 보고는 장로님을 보기위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그 자리에 없었다.

눈을 뜨고 나니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호명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 ▶



천사와 과일 (1980년 3월 중순)



1980년 당시의 저자

주위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다. 봄이 다가오니 밖은 화창하고 따뜻한 가운데 독방에서 지내는 것이 몹시 갑갑하였는데, 어느 날 이상 중에 천사가 찾아왔다. “따라오시죠.” “어디를 가려고 그러오?” “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갔다.

천사의 모습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으며, 평범하게 보였는데, 나보다 키가 7~8cm 정도 더 커 보였다. 그 음성도 남자와 여자의 음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얼굴은 미남과 미녀의 형상이 합쳐진 것 같았고 서구적인 모습이었다.

기온이 섭씨 한 22도 정도 되는 따뜻한 날이었는데, 나는 천사를 따라 쉬지 않고 길을 계속 갔다.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천사에게 말을 했다. “이 보오, 다리가 아픈데 어디를 자꾸 가는 거요?” “이제 다 왔습니다.” 한참 가다가 공원 같은 곳이 나왔고,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겉다보니 덥고 다리도 아파서, 여기 좀 앉아서 쉬겠다고 하니, 천사가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는 어딘가 가서 꽤 큰 광주리를 가지고 돌아 왔다. 그 안에는 참외 같기도 하고 모과 같기도 한 과일도 있고, 사과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었다. “이거 좀 드십시오.” 그렇잖아도 목도 마르고 해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었다. 그 과일들은 막 따온 것인데도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처럼 시원했다. 과일을 먹다가 그 천사를 찾으니,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과일을 실컷 먹고 눈을 떴는데,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 안이었다. 희한한 것은, 걷기는 이상 중에 걸었는데도 실제 오랫동안 길을 걸은 것처럼 다리가 아팠다. 내가 바깥세상을 못 보고 독방에만 있다 보니 갑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 실컷 걷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위로해주신 이상이었다. 순간 머리 위로 이슬 같은 성령이 쏟아져 내렸다.

저자와 함께 길을 가던 천사가 과일을 가져 온 장면 ▶



알밤 추수 (1978년 여름)



1978년 당시의 저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알밤을 거두는 장면을 보여 주셨다. 바람이 부니 알밤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걸 주워서 광주리에 담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제가 지금 밤을 주워서 광주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아라. 익은 밤은 바람이 불 때 떨어져서 네가 거두어 광주리에 담을 수 있지만, 익지 않은 밤은 떨어지지 않으니 네가 아무리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지 않느냐? 너를 따르는 양떼들도 이렇게 익지 않으면 네가 거두어서 나 여호와에게 가져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익어야 추수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이상을 보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사명이구나 하는 근심이 밀려왔다.

여호와께서 저자에게, 따르는 자들이 ▶
알밤과 같이 익어야 거둘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장면





포도 추수 (1982년)

1978년에 알밤을 줍는 이상에 이어, 1982년에 다시 포도를 따는 이상을 보여주셨다. 익은 포도는 송이에 손만 대도 꼭지가 딱 떨어져 광주리에 담을 수 있었지만, 익지 않은 건 아무리 돌려도 포도만 상하고 딸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예, 제가 지금 포도를 따고 있습니다.”

“잘 봐라! 익은 것은 손만 대도 힘 안 들이고 네가 딸 수 있지만, 익지 않은 건 안 떨어지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익으면 네가 거둘 수 있지만, 익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거두고 싶어도 나 여호와에게 들여놓을 수 없느니라.” 하시며 양떼들이 알곡으로 익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다.

나는 두 번씩이나 진실된 성도들을 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다.



1982년 당시의 저자

◀ 여호와께서 저자에게, 따르는 자들이 포도와 같이 익어야 거둘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장면



한탄하는 감람나무 (1983년)

오늘날 잔칫상을 벌려놓았는데도 오는 자가 없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알곡성전을 만들어놓고, 살아 있을 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생수로 다 씻어주고, 죽은 후에는 그 영을 구원받게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1983년 이상 중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탄식을 했다. 내가 기성 교회 장로들에게 “감람나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열심히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박 장로(첫 감람나무)와 똑같은 놈이야.” 하며 외면해 버렸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십시오.” 하니까, “거 사이비 종교 아니냐.” 하며 비웃었다. 전도관 식구들한테, “두 번째 감람나무가 분명하니까 오십시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탄파라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비웃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디에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오늘날의 당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감람나무 역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하늘에서 광채가 나에게 비취며 말씀이 내려왔다.

“네가 감람나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느니라. 네가 감람나무를 주장하지 않고 능력을 베풀었더라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많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감람나무 역사는 나 여호와의 섭리이니 네가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뜨니 마음이 몹시 서글펐다.

◀ 저자가 하늘의 섭리를 전하여도 누구도 믿지 않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



1983년 당시의 저자

축복의 말씀 (1990년 5월)



1990년 당시의 저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 알곡성전 앞쪽에 낙엽송이 우거진 오솔길 쪽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지갯빛 광채가 나타나더니 구불구불하게 내려와 알곡성전 앞마당에 닿았고, 하늘이 열린 곳에 여호와의 보좌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위로 올라서라.”

빛이 닿은 곳에 올라서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는데, 그 보좌는 하늘나라에서 보였던 것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나 여호와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

내가 에덴성회를 시작하기 전인 1972년 10월에, 앞선 역사가 패망해 가는 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앞선 역사에 대해, “이 백성이 모세 시대보다 더 목이 굵다.”고 책망을 하셨었는데, 18년 만에 여호와께서 노를 푸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알곡성전은 말 그대로 하늘군병이 되는 알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다 (계14:15-16 참고). 그래서 알곡성전을 거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안개를 뚫고 내려오는 비단결 같은 찬란한 광채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 후에 나는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알곡성전 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 감회에 젖어, 이상 중에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저자에게, “너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
나 여호와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 외의 이상들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은 1958년, 16세 때였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된 것은 4년 뒤인 1962년이었으며, 예수님을 직접 뵈고 음성을 들은 것은 1970년, 28세 때였다. 여호와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에 비해 약간 더 굵고 웅장한 분위기가 있으며, 예수님의 음성은 여호와의 음성에 비하여 약간 더 가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들

처음 들은 여호와의 음성 (1958년 10월 29일)

나는 1958년 만16세에 경북 김천에서 전도관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해 10월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이사하였다. 서울로 이사한 지 며칠 안 되어 부친이 별세(1958년 10월 28일)하였다. 그 이튿날 이모 댁에 부친의 부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됐구나.” 하고 생각할 때, “네가 어디에서 아버지를 찾느냐? 네 아버지는 하늘에 있느니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 하늘을 쳐다보니 새털구름만 떠다니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1962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실 때 알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1962년 4월 중순)

나는 1960년 6월부터 서울 용두동에 있는 대일목재를 다니다가 1962년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직장을 찾고 있을 때, 꿈에서 앞선 종으로부터 전도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전도관 신앙촌에서 전도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 성경공부를 하였다. 어느 날 새벽예배 후에 성경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제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하리라.” 그 음성은 16세 때 들었던 것과 같았다.

나는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

업으로 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호와와는 이긴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긴자를 그의 아들로 대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계21:6-7).

성경의 빈 곳 (1970년 8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성경책을 펼치라고 하셨는데, 그 성경책은 보통 성경책의 서너 배는 되어 보였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펴라.” 하셔서 성경을 폈다. “네가 그걸 보라.”고 하셔서 보니까, 글이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저기 빈 곳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빈칸을 보라. 그 빈칸은 가려져 있던 이야기들이다.” 하셔서 그 빈칸을 들여다보니, 거기에서 마치 영화처럼 장면이 나타났다. 그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그 동안 마귀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어두셨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간혹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궁금한 것에 대해 화면을 통해서 보여 주심을 받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세 시대보다 더 목이 곧다 (1972년 10월)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앞선 종이 인도하고 있던 역사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이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나를 원망하던 백성들보다도 더 목이 곧은 자들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노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데 땅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것을 느끼며, 잠시 숨을 가다듬고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여호와시여, 모세 시대에도 노하셔서 백성들을 치시려 할 때 모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관대함을 베푸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저는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두 감람나무를 정하셨을 때는 뜻이 있으셨을 것이니, 노하심을 푸시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그 빛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하늘문이 닫혔다.

복직 지시 (1973년 3월 18일)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카시아 꽃이 핀 모습을 보여주시며,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에 전도사로 복직하여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앞선 종과 나 사이의 관계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원만한 인제가 이루어지는 사이가 아니고, 사울과 다윗처럼 적대관계가 될 것을 직감하고 고민하였다. 나

는 답변을 드리지 않았다.

복직 지시 재촉 (1973년 3월 20일)

주의 종의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지 이틀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며, “서둘러라. 저 안이 급하다.”고 하셨다. 나는 사회에 벌려 놓은 일이 많아, 정리를 위해 6개월의 여유를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다.

핵무기 (1973년 6월)

이상 중에 여호와께로부터 핵무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 내용은, 인간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도리어 핵무기가 처치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무기를 만든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었다.

따로 하라 (1973년 10월 2일)

9월 16일에 전도관에 복직했다가 제2감람나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앞선 종으로부터 해직당했다. 그 후 새벽 이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지시가 내려졌다. 하늘에서 4가지를 구분하여 보여주셨다.

첫째, 전도관 단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인생들이 오만한 자세로 자리를 차지하여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고, 둘째, 성도님들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 퍼드가 들어와도 쫓아내지 않고 세퍼드와 같이 성전 안에서 활보를 하면서 제단 내부를 더럽혔으며, 셋째, 이슬과 향취 (주의 보혈로 이루신 생수, 사26:19 참고) 대신에 형광등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벌레와 조그마한 나비들이 우글거렸고, 넷째, 내가 홍제동 전도관에서 한 설교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내가 두 번째 감람나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앞선 종이, 사전에 제지를 시키지 않고 자신에게 보고가 올라오도록 일처리를 했다고 노발대발 하였다. 그는 영적인 위대함이 사라지고 완전히 육으로 돌아간 모습이였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전도관 식구들이 나에게 모여들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대문 동쪽으로 장소를 구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수보하는 자 (1973년 11월)

에덴성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역사를 네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앞선 종

이 잘 한 것까지도 네게 상으로 갚아 주리라.”고 하셨다.

성도들의 외면 (1973년 11월)

1973년 11월 17일에 에덴성회를 시작한 후, 어느 날 단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열심히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수가 모여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다.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네가 설교할 적에 외면하고 듣지 않는 걸 보라.” 이상 중에 보니,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만큼 교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다.

생수가 10배 강함 (1973년 12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을 주셨다. “네 시대는 앞선 종의 시대보다 생수의 효과가 10배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스가라의 예언 (1974년 3월 15일)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네 시대로부터 2,500년 전, 내가 내 젊은 종 스가라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스가라가 나처럼 젊은 나이에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다.

네가 선 단이 거룩하다 (1974년 4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국내외 큰 교회들을 보여주셨다. 이어서 내가 서있는 청량리 제단의 지붕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선 단이 거룩하니라. 그것은 내 섭리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니라.”

만들어져야 들어온다 (1974년)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너도 들여 놓을 생각을 말아라.” 라고 하셨다.

뇌에 기록 (1974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내 뇌를 조정했다고 하시며 나의 뇌를 보여주셨는데, 나

의 뇌 속에 라디오 부속 같은 조그만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7만 8천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며 다음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의 뇌를 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뇌와 달라서, 한 번 기억하게 되면, 특히 하늘나라의 모든 일들은 어제의 일처럼 평생 너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 것이니라.”

물댄 동산 (1974년)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네 맘과 같이 동하면 내가 하는 일은 물댄 동산 같이 되리라.”고 하셨다.

천년세계 (1975년 7월)

계시록에 대해 강해설교를 하다가 천년세계에 대해 설명하며, ‘천 년이나 기다린다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 년이 지상에서는 길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잠깐에 불과하니라.” 라고 알려주셨다.

깊아주심 (1975년)

하나님께서, “앞선 역사에서 고생한 자들이 너에게 와서 수고하면 앞선 역사에서 행한 것까지 깊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고독 (1975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네 나이가 들어가고 성도들이 많이 따르게 되면, 너는 홀로 고독함을 느끼는 위치가 되리라.”

나는 이상 중에도, 사람이 많아지는데 왜 고독을 느낀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로서, 고독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친모의 사랑 (1977년 10월 18일)

이상 중에 목자의 참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길을 잃은 어린애가 자기 어머니를 찾으려 울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는 먼 곳에 있는데, 아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인을 자기 어머니인 줄 알

고 갔다가, 아닌 것을 보고 다시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결국 그 아이는 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품에 안겼다.

나는 친어머니의 따뜻한 애정의 눈길과 다른 여자의 무관심한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헌신과 봉사처럼 귀한 것은 없느니라.” 이것은 성도를 대할 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 남이 거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조그마한 분야일지라도 무관심 할 때에 결과적으로 여호와께 노여우심을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지는 이상 중에 보니, 서울 성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루와 유리창을 닦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길 보라. 내 성전에 먼지 하나 닦는 것까지도 다 기억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리라.”

추도예배 (1977년)

여호와께서 추도예배의 귀중성에 대해 알려주셨다. 나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 추도예배를 드리면, 그 제사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

알곡성전 이상 (1980년 4월)

주위의 모함으로 옥에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하고 지시하셨다. 새로운 성전은 단상 앞에 휘장이 있어서 예배가 있을 때에만 단을 개방하고, 평소에는 가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성가대석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성가대원들이 양쪽에 앉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 제단 건축 (1982년 10월)

인천 제단을 건축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지방 제단들을 인천 제단 식으로 서둘러서 지으라고 하시며,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나를 따르는 양떼들의 손으로 하라고 지시하셨다.

서울별관 건축 (1983년 9월)

서울 교회에서 별관을 건축하려고 할 때,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헌금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주셨다. “너를 따르는 양떼들 중에 80%가 체계가 섰느니라(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의 요구를 따른다는 뜻). 네가 건축을 추진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라.”

존귀케 해주리라 (1987년 12월)

알곡성전 건축을 끝낸 후에, 여호와께서,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앞으로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케 해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저는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를 따르는 양떼들이 앞선 종의 역사에서도 고생이 많았고 이 역사에 와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을 남김없이 상으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죄를 씻어주심 (1971년 4월)

내가 석관동에서 셋방살이 할 때의 이상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말씀을 주셨다. “너에게 있는 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죄를 내가 내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였노라. 이제 너를 통해서 내 피가 전해져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리라. 이 시대에 너를 통하지 않고는 내 섭리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서 밝은 광채가 비치면서 천사들의 황홀한 합창소리가 들려왔는데, “내 모든 죄 나를 얹어 댔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고 내 지은 죄 주홍빛과 같아도 내 주의 피가 나를 희게 씻었네” 하는 합동찬송가 200장 찬송이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천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합창 소리만 들려왔다.

9만 명 (1972년 2월 27일)

예수님께서 앞선 종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준 숫자가 9만 명이

었지만, 그들이 급속히 타락하여 그 수가 줄어든다고 하시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다.

헤게모니 (1972년 3월 5일)

3월 1일 저녁 때 동생 영자가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서는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사면인즉, 2월 26일에 앞선 종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이였다. 나는 무슨 일로 앞선 종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시는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4일 후인 3월 5일에 응답이 있었다. 이상 중에 보니, 앞선 종의 사모님이 앞장서서 관장들을 이리 저리 발령을 내고, 앞선 종은 한쪽에서 못마땅한 얼굴로 보고만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가 ‘헤게모니’(독일어로 말씀하심)를 쥐고 흔든다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주도권을 행사하며 예수님께 불영광을 돌렸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서 앞선 종에게, 그녀가 하늘의 일을 가로막은 악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나, 앞선 종이 세 번이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 손을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녀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므로 결국은 주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설명을 주셨다.

40억 인구 중에 (1972년 5월)

석관동에서 셋방살이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서 이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40억 인구 중에 택했노라. 이 시대에 하늘의 섭리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난 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찾다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40억 인구 중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인가 하며 감회를 느꼈다.

내 피를 짓밟는다 (1972년 10월)

예수님께서서 패망해가는 앞선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다 말고 슬픔 속에 눈물을 지으시며 그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2천 년 간 기다렸다가 그 존재가 나왔기에 파격적으로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었노라. 그것을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제가 봤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서, “그게 전자(첫 감람나무)의 것이냐, 내 피냐?”고 말씀하셨다. 내

가 “주의 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자를 따르는 자들이 내 피를 짓밟아 버리고 나를 배신하기에 이르렀노라.”고 하셨다. 나는 이해가 안 갔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에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모독하고 짓밟은 것들은 심판 때에 내가 반드시 불러다가 직접 지옥에 던지리라.” 하고 대노하셨다.

네 민족은 특이하다 (1972년 10월)

예수님께서 앞선 종의 역사에 대해, “2천 년간 많은 민족을 대해보고 이끌어왔지만, 그 중에 너희 민족은 참 특이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느꼈다.

혼자 해야 한다 (1973년 3월 8일)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영의 세계에서 같이 힘을 합하여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과 영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계11:7), 불행하게도 앞선 종의 역사가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두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을 나 혼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나는 참으로 마음에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었다.

네가 이겼다 (1973년 5월 5일)

쌍문동에 있을 때 주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셨다. “그 동안 너를 갖가지 여건에 두고 지켜보았노라. 네가 어떤 여건에서도 나를 섬기는 자세가 변치 않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네가 이겼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해온 것을 알 것이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네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스팔트로 된 대로를 보여주셨다.

능력을 옮겨주심 (1973년 6월 26일)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앞선 종과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 앞에 둘 다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앞선 종에게, “너는 이제 사명이 끝났다. 너는 나와서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네가 하던 모든 일은 이영수에게 넘겨진다.” 하니깐 앞선 종의 얼굴에 있던 광채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나에게로 옮겨졌다. 영광이 하나하나 옮겨지고 능력이 하나하나 옮겨질 때마다 앞선 종

의 모습이 조금씩 변했다.

이어서 '새찬송가'(1962년 출판)를 사용하지 말고 '합동찬송가'(1949년 출판)를 사용하라고 하셨다. 새찬송가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사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시고, 합동찬송가 가사는 한 증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쓰였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하셨다. 합동찬송가 중에서도 191장('십자가를 지심', 작사 김인식, 1905)이 당신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앞선 종과 함께 기름을 부으심 (1973년 7월)

무너져버린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어려운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시 받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라는 당부를 받았을 때에, 나는 긴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제가 나가서 주의 뜻을 전하게 되면 그 누구도 믿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인데, 연예계에 있었던 나로서는 벅찬 일입니다.”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존경하며 따르던 앞선 종을 내가 직접 기름을 부어 감람나무로 세웠을 때에, 성서에 기록된 대로 나는 돌을 세웠노라. 네가 어릴 때는 나를 몰랐으나 나는 그 때에 이미 두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너에게도 그와 똑같이 기름을 부었었노라. 네가 지난날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네가 나를 몰랐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지난날의 생활을 돌이켜 보라.” 그리고 “네가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보라.” 하고 보여 주셨을 때, 빛이 꺼져서 성도들이 갈 길을 못 찾아 유리방향하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성도들이 군데 군데 모여서 예배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이어서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울의 시신 (1973년 7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중에, 사도 바울의 시신이라고 하시면서, 머리가 잘리고 떨어져있는 시신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재차 설명하시기를, “바울은 살아생전에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

다가 끝내는 저렇게 순교를 당했노라. 너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역사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

축복 중단 요청 (1974년 1월 10일)

앞선 종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므로, 나는 예수님 앞에 그의 사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거두면 내 영광에 지장이 올 수 있으니, 서서히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주의 노하심 (1974년 3월)

예수님께서 앞선 역사에 대한 서운함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자의 역사에 아낌없는 성원과 은혜를 주었노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수많은 양떼들은 나에게 이렇다 할 도움을 준 것이 없노라.” 하시며 노여워하셨다.

두 번 속지 않는다 (1974년 10월)

앞선 종은 나를 짓밟고, 사회에서는 핍박하고, 누구 하나 날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감람나무 역사가 너무나도 초라하여 내가 하루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 “주님, 이렇게 감람나무 역사가 초라해서야 누가 나를 따라 오겠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앞선 종을 통해서 하셨듯이 능력을 쏟아주셔도 올까말까 한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이상 중에, 신앙촌 노구산(露求山) 옥외집회(1958년 6월 30일 ~ 7월 5일)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외면당했다가 수년 후에 나를 통해 다시 복구되는 장면을 보여주신 후 말씀을 주셨다. “내가 전에는 내 피를 아낌없이 주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속는다. 더 이상 내 피가 짓밟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노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 지시를 이루면 그 다음에 내가 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주의 사죄권 (1974년)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시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가지신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쭙자, “내가 가진 권한 중에는 뭐니 뭐니 해도 사죄권이 가장 크니라.” 라고 하셨다. 내가 “그렇다면 그 권한을 주의 종이 주님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그 권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2천 년을 기다리심 (1974년)

에덴성회를 시작한 후에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닥쳐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하며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이상 중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시대에 이긴자의 일을 하지만 나는 이긴자 나타나기를 2천 년이 가깝게 기다렸었노라.”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어려워도 감람나무 역사를 완수하라고 말씀하셨다.

3년 만에 (1975년 5월)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선 종이 정직하고 열성적으로 내 일을 한 것은 3년 뿐이니라.”고 하셨다. 앞선 종은 1957년부터 호조건, 악조건이라는 말을 듣고 나오며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였다.

불담 (1975년 6월 4일)

낮에 잠깐 눈을 감고 졸았는데, 멀리서 환한 빛이 나타나더니 주께서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 “네가 존경하고 따랐던 앞선 종을 내가 오늘날까지 은총을 주어 종으로 삼고 그를 불담으로 지켜준 것처럼, 너를 불담으로 지켜주리라.”

악령을 이기라 (1975년)

주께서 이상 중에, 육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악령의 지배를 물리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영의 세계에서도 악령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다.

신앙인의 세 가지 자세 (1976년)

주께서 이상 중에, 나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 가지 양상으로 따르게 된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서 감지덕지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네 앞에서는 이긴자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육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오니까 너를 따라오면서 너를 존경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부

류를 구분해서 대하라고 알려주셨다.

어려움을 참으라 (1978년 10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며 낙심할 때 주께서 이상 중에 말씀을 주셨다. “전에 내가 너에게, 내가 십자가를 진 것과 빌라도 뜰에서 고통을 당했던 어려움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도록 해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또 다시 기를 쓰고 일을 하게 되었다.

사모 지정 (1982년 3월 27일)

한 번은, 이상 중에, 미혼으로 지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역사에 어려운 점이 많아지면서 주의 종인 나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장면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다소나마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었다.

며칠 후 지방 순회를 하던 중, 27일에는 대구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종오 집사님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밤 이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결혼 상대를 지정해 주셨다. 결혼 문제로 지시가 내려오기는 32세 때와 며칠 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미 들 거다 (1982년 4월 4일)

이종은 권사에게 연락해서, 내가 사는 곳으로 이 권사의 가족을 오도록 하여, 이 권사의 딸에게 이상 중에 주신 예수님의 지시를 알려주었다. 그날 밤 그녀가 과연 나를 잘 보필하며 주의 일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녀가 내 마음에 흡족할 것인지 염려하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살다보면 정미 들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그녀가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이며, 원만하게 잘 보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셨다.

추수 사명을 받은 이영수 총회장

홍보부장 윤상학

이영수 총회장

에텐성회 이영수 총회장은 성경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 중 두 번째 감람나무로, 예수님의 두 증인 중 한 명이며, 마지막 때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슌 4:14, 계 11:3-4, 14:14-16). 이 총회장은 1970년 4월에 처음 하나님을 알현하였으며,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이상 중에 감람나무로서의 할 일을 가르침 받았고,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이상을 보여주심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본 이상들 중 일부를 화보로 만들어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사명을 받음

이 총회장은 1942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당시 서울에서 살던 그의 부친이 황해도 금천의 지주이던 할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토지개혁으로 모든 것을 몰수당했다. 이후 그의 가족은 모친의 고향인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총회장은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러다 한국전쟁 중 그의 가족은 경상북도 김천으로 이주하였고, 이 총회장은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부친이 병이 들어 치료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관을 다니며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 예언된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1784년 이승훈이 처음 세례를 받은 후 천주교가 정착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박해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1866년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가 성경을 전해주면서 순교한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신앙을 전파하였고, 개신교인들은 순교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순교자들 중에 하늘에서 택하신 자들은 장차 영의 세계에서 하늘 군병이 될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람나무를 세우신 것을 보면, 감람나무를 세우실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

님께서는 마지막 때 추수하는 사명을 해야 할 두 감람나무를 한국 땅에 세우기로 정하셨으며, 그 사실을 일제 강점기 때 몇 명의 목사님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전집 중 “신앙 간증담”의 ‘권사 전명자’, ‘권사 김몽희’, ‘권사 이순여’ 항목 참고)

예수님은 1951년, 625 전쟁 중에 두 감람나무를 세우셨는데, 그 당시 이영수 총회장은 9세였으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2감람나무로 정하시고 첫 감람나무와 함께 기름을 부으셨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연단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장차 제2감람나무로 쓰이기 위해 준비를 시키셨다.

이 총회장은 16세인 1958년에, 어머니께서 부친의 병을 고치고자 첫 감람나무가 세운 전도관에 나가시게 되면서 함께 전도관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는 1962년, 20세에 전도관의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고, 6년 동안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전도관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968년에 휴직하였다. 예수님은 앞선 종이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한 것은 3년밖에 안 된다고 이 총회장에게 알려주셨다.

첫 감람나무 역사가 곁길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예정보다 일찍 둘째 감람나무를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나 첫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총회장에게 일을 따로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1973년에 에덴성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다.

이상 체험

예수님께서 1970년 4월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 가셨으며, 이 총회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람나무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만들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심 받았다.

그 일 후에 그는 수많은 이상을 보았다. 어떤 이상 중에는 곳곳이 비어 있는 성경을 보았는데, 그는 그 빈 곳에서 나타나는 영상을 보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계 2:17). 흰 돌은 예수님을,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계 19:12-13).

그는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았다. 이것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예언에 해당한다(계 3:5). 그 책에서 첫 번째 위치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세 번째에 있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것은 일평생 수고하고 끝내 순교를 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세 번째 위치에 녹명이 되었다. 이것은 그가 예언된 존재로서 일을 해야 할 인물로 선택되었기 때문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를 보여 준다. 그가 사명을 마치면 그의 이름은 첫 번째 위치로 올라가는데,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긴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요, 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인 것이다(계 2:26, 3:21).

그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네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앞으로 너를 통해 내 것이 나간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겨주셔서 그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씻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계 21:6-7).

하나님께서서는 그에게, “내가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2,500년 전에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감람나무는 금 기름, 곧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주는 존재이며, 그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슥 4장).

그 후에 마귀들이 그를 찾아와 괴롭혔으며, 그는 마귀 세계에 끌려가 대왕 마귀를 보기도 했다.

예수님은 앞선 종을 통해 아낌 없이 은혜를 주신 자들이 9만 명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견지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며, 성경에 예언된 이긴자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만드셨지만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 인류는 원시 생활을 하며 긴 세월을 지내왔는데, 이영수 총회장은 이상 중에 원시인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짐승을 사냥하고 동굴에서 지내는 장면을 보았고, 이 화보집에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원시 시대를 거쳐서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한 청동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가인과 아벨을 택하셨다. 가인은 농사를 짓던 인물이고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다. 이미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양도 칠 줄 알게 된 시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여 교류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로 인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제사가 상달된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죄를 또 범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실 때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에게 표를 주셨다. 이영수 총회장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를 보았고, 이 책에 그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갑자기 30대 때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한다. 이영수 총회장은 이상 중에 20대 초반의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목수 일을 마치시고 방에 들어오셔서 손수 짜신 책상 위에 이사야서를 펴 놓으시고 읽으시다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이 화보집의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궁금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장면을 이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이 나눠줄 때에, 받는 사람이 느낄 새도 없이 양이 불어나 전달되었다. 이 화보집에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이 담겼다.

이 총회장은 하늘나라에서 144,000의 의의 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소개되는 천국연회장 이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상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언급하실 때 그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으며, 듣는 당사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 장면도 이 화보집에 담겨 있다.

이 총회장은 이상 중에 마귀와의 전쟁이 끝난 후 하늘 군병들이 역조창생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장면을 화보집에 담았다. 이 심판의 결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 결정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이 총회장은 또 이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심 받았는데, 놀랍게도 지옥은 커다란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불이 그 안에서 타고 있었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만 좀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고통

을 겪고 있었다. 이것도 이 화보집에 그림으로 담겨 있다.

이 총회장은 자신이 알밤과 포도를 거두는 이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알밤과 포도처럼 익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의 사명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쳐 알밤과 포도처럼 익혀서 거두는 것이다.

이 총회장은 이상 중에 세마포 입은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세마포는 SF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투명하면서 반짝이는 외형을 갖고 있었고, 피부처럼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 결과 하늘 군병들은 마귀들의 수가 많다고 해도 그들을 모두 무찌르게 될 것이다.

알곡성전 건축

에텐성회가 꾸준히 발전하자 주변에서 그를 모함하였고, 이 총회장은 1979년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있는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1980년 4월, 여호와께서 옥중에 있는 그에게,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내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시며,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 이 성전은,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라.”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곳으로(계 14:15), 알곡을 거두는 성전이란 뜻으로 ‘알곡성전’으로 불린다. 이 총회장이 바로 이 곡식을 거둘 사명을 받은 존재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의 모습과 주위 환경에 대해 보여주셨다.

1985년 9월,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이 총회장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산을 구입하고 알곡성전을 건축하여 1987년 11월 8일에 하나님께 헌당하였다. 1987년 12월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내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앞으로 너를 존귀케 해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또 1990년 5월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 내 나라로 들어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부속된 건물들을 하나씩 차례로 보여주시며 건축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이 총회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알곡성전 단지 내에 종합운동장, 대형 공연장(문화의전당), 호텔(호텔화이트스톤) 등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 총회장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1974년 설교집 1권이 발간된 이후 설교집으로 꾸준히 간행되어 2006년 16권까지 나왔으며, 1975년에는 계시록을 설명한 계시록강해가 출판되었다. 성도들의 간증담은 1979년에 제1권, 1987년에 제2권이 출판되었고, 그의 설교 중에서 42편의 설교를 모아 만든 “천국은 있는가”는 2008년에 출판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총 20권으로 구성된 이 총회장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가 출판되었고, 이 이상화보집은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2014년에는 이상 중에 본 장면들을 크게 인쇄하여 ‘문화의 전당’ 6층과 7층 로비에 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권면의 말씀

이영수 총회장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추수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존재다(계 14:14-16).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셨으며(계 21:6-7),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를 당신의 두 증인 중 하나로 세우셨다(계 11:3-4). 그가 추수하는 일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알곡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알곡성전에서 그를 통해 배출되는 성도들은 역대의 순교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며, 장차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그를 통해 생명수 샘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에덴성회 웹사이트에 있는 이 총회장의 설교집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알곡성전 단지 소개



주발봉에서 바라본 알곡성전 단지 모습. 왼쪽에 알곡성전과 별관들이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문화의전당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사진 중앙에 호텔화이트스톤의 동관과 골프연습장이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1980년에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후 성전의 모습과 주변 환경을 상세하게 보여주셨다. 1985년에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영수 총회장은 1987년 알곡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헌당하였다. 그 후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건물을 보여주시는 대로 이 총회장은 부속 건물들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알곡성전

알곡성전은 노아의 방주와 비교할 때 폭과 높이가 같고 길이는 절반이다. 알곡성전 위에 있는 달팽이 모양의 구조물은 제단 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연을 상징하는데, 이 향연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성전 앞면에는 십자가 주위에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이는 마지막 때 부는 일곱 나팔을 나타내고, 양 옆에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있는 비둘기는 감람나무 역사에 성령이 함께함을 나타낸다.



알곡성전 성가대석

알곡성전의 모든 내, 외부 모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것이다. 단상 앞에는 휘장이 있고, 그 아래에서 관현악단과 양 옆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있다.



알곡성전 뒷면의 유리건물과 폭포커피숍은 나중에 추가되었다.



성전 1별관



성전 2별관



성전 3별관



알곡성전 별관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은 12층이지만 일반 건물의 18층 높이에 해당하며, 연면적이 7만여 평방미터,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는 필적할 곳이 없으며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문화예술 공연장이다. 건물 앞면 중앙 위에는 네천사장인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 양옆에는 영의 세계에 가서 받게 될 두 감람나무의 권세를 상징하는 두 개의 왕관이 있다.



문화의전당 야경



문화의전당 대공연장

대공연장은 문화의전당 6층부터 9층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며 약 6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천장에는 우주를 형상화한 48만여 개의 LED 조명이 은하계를 비롯한 광대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며 천장의 정 중앙에는 이영수 총회장이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본 '하나님의 보좌' 형상이 있다.

6, 7층 로비에는 이 총회장이 본 이상 장면들을 그린 그림 32점이 전시되어 있다.



문화의전당 로비

호텔화이트스톤

에덴벚꽃길의 끝자락에 5성급 호텔이 건설 중에 있다. 호텔 내에는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2천 명 규모의 체육관이 있고, 체육관 옥상을 나가면 산책로가 있는데 알곡성전, 문 회의전당,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진다.



호텔 동관



호텔 앞 에덴벚꽃길

에덴벚꽃길

알곡성전을 건축하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때 길 양옆에 심은 벚나무들이 30년이 지나 양쪽 나무들의 가지가 맞닿아 하늘을 덮었다.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벚꽃축제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에덴종합운동장

에덴종합운동장 내의 축구장은 프로축구단 및 청소년 축구단의 전지훈련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 옆의 야구장은 사회인 야구단의 경기가 끊이지 않는다. 축구장과 야구장 중간에 양쪽 모두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다. 에덴 종합운동장 뒷편으로 문화의전당, 꿈의동산(놀이동산), 꿈의성(식당, 커피숍, 매점 등의 편의시설 운영), 안보교육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알곡성전 별관들이 보이고 있다.



에덴축구장

천연잔디로 이루어진 축구장과 국제규격의 육상트랙을 갖추고 있으며, 약 2천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관중석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연예인 축구팀이 참여하는 보훈단체 돕기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고, 프로 축구팀, 유소년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팀 등의 전지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M파크(왼쪽)와 안보교육장(오른쪽)

놀이동산 왼쪽으로 안보교육장이 있고, 그 위에 M파크가 있다. M파크에서는 매년 야외예배를 드리고 있고, 결혼식 등 각종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교육장에는 비행기, 탱크 등 무기와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공룡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꿈의동산(놀이동산)

바이킹, 하늘자전거,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는 놀이동산은 평소에는 교인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어린이날 등 특별한 날에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늘자전거

상천청소년수련원 전경

상천청소년수련원 별관 건물 위에는 경춘가도에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소형 에펠탑이 있다. 상천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로 시작하여 우수 시설로 여러 차례 수상을 한 바 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수련이 이어지고 있고, 수련원 아래에는 상천에덴플리자가 있는데, 1층의 상천신경외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상천청소년수련원 본관과 별관

본관은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작은 에펠탑을 가진 별관에는 컨벤션홀, 세미나실, 실내 테니스장이 있고, 야외에는 풋살경기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의 시설이 있다.



에덴농산물센터

에덴농산물센터에는 자율식당, 커피코너, 마트 등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



에덴스포츠타운

에덴스포츠타운에는 1층에는 수영장, 볼링장이 있고 2층에 농구, 배구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다.

지방교회

에덴성회 본원인 경기도 가평의 알곡성전 외에 전국에 30여 개의 교회가 있어 교인들은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



서울교회



남양주교회



영덕교회



홍성교회



춘천교회



대구교회



강화교회



대전교회



부천교회



인천교회



부산교회



광주교회



일산교회



천안교회



청주교회



원주교회



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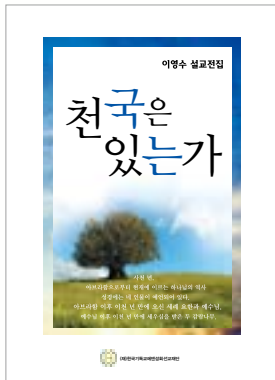
에덴성회 출간 도서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이영수 지음, 2012

에덴의 메아리는 1~16권의 설교집, 천국은 있는가, 계시록 강해, 신앙간증담, The Witness of the Olive Tree 등 총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입문의. 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천국은 있는가
이영수 지음
2012



예수의 증인,
두 감람나무
윤상학 지음
2013



예수님은 왜
아직까지 안 오시나?
윤상학 지음
2017



예수, 감람나무,
그리고 예언
윤상학 지음
2017





예수님은 2천 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형상을 가지셨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태어나시기 전의 원 모습으로 변화하셨다. 이 그림은 1970년 이영수 총회장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형상으로, 현재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